

암투병 여성의 유언에 이어진 기부 행렬



▲ 케이스 매킨타이어(오른쪽)와 그의 남편과 어린 딸
사진=instagram(caseymcintyre)

난소암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여성의 유언으로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

지난 19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2019년부터 난소암 치료를 받은 케이스 매킨타이어(38)가 지난 12일 숨을 거두었다. 그런데 이를 뒤 그가 X(옛 트위터)에 남긴 '내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라는 글이 발

견되면서 그로부터 일주일도 되지 않아 40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이 모였다.

매킨타이어는 글에서 "여러분이 이 글을 본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다"라며 "나는 운 좋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삶을 빛내기 위해 나는 다른 사람의 의료 부채를 매입해 이를 없애도록 해왔다"며 다른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운동 참여 링크를 남겼다.

해당 모금 운동은 자선 운동 'RIP 메디컬 댕'(RIP Medical Debt)으로, 2014년 출범한 의료 부채 탕감 운동이다. 의료 기관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의료 부채를 매입해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빈곤층을 돕는다.

매킨타이어가 개설한 기부 계정에는 지난 20일 기준 42만 8,000달러가 모였다. 기부금 1달러로 의료 부채를 매입하면 약 100배에 달하는 100달러가 탕감되는 효과가 생긴다. 매킨타이어처럼 사후에 'RIP 메디컬 댕'에서 기부 운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기내방송 중 "내 사과 받아줘"

미국 항공사 제트블루의 한 항공 승무원이 기내 방송으로 승객 커플의 화해를 도운 일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보스턴 출신의 항공승무원 베라씨는 기내에서 한 커플 승객의 화해를 돕는 기내 방송을 했다고 뉴욕포스트(NYP)가 최근 보도했다.



▲ 항공기 승객석 내부 모습, 사진=shutterstock

베라는 비행 중 한 남성 승객의 부탁을 받았다. 그 남성은 베라에게 "같이 비행기에 탄 여자친구가 (자신과 싸워) 매우 화가 났다"며 "비행이 끝날 때쯤 여자친구에게 사과하는 안내방송을 (이벤트로)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가명을 사용해서 '사라야, 에릭이 너에게 정말 미안하다. 너와 좋은 주말을 보내길 기대하고 있다'라

고 방송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베라는 동료 승무원들과 상의해 해당 남성의 부탁을 들어줬다. 베라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방송을 들은 승객들이 웃으며 재밌어 했다"며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연인이)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싫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누리꾼은 "승무원이 재치 있게 기내 방송을 해 재밌었을 것 같다", "내가 저런 사과를 받는다면 바로 마음이 녹을 것" 등의 의견을 남겼다.

반면 "비행기에 탄 사람 모두가 개인의 연애사를 알 필요는 없다", "애인이 저런 식으로 사과하면 오히려 더 화가 날 것 같다"고 비판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104년 대출됐던 책 반납 ... 연체료는?



▲ 104년 만에 도서관에 반납된 '유명한 작곡가들'
사진=mpnews.org

미국 미네소타의 한 도서관에 100년 동안 연체된 책이 반납됐다.

지난 19일 AP통신에 따르면 1919년 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 한 권이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 공립 도서관에 반납됐다. 이 책은 1902년 출판된 '유명한 작곡가' (Famous Composers)라는 책으로,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의 한 주민이 친척의 소장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속 책의 밑부분에는 도서관에서 대출했음을 나타내는 도장이 찍혀있으며, 책 뒷면에 있는 대출 영수증에는 1919년 대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104년 만에 도서관으로 돌아온 것이다.

도서관은 2019년부터 연체료 시스템을 폐지했지만, 세인트 폴 도서관 사서 존 라슨에 따르면 연체료를 하루 1페니로 가정했을 때 연체료만 3만6,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도서관 측은 반납된 책을 다시 유통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라슨은 "책의 상태가 매우 취약하다"며 "책이 다시 유통될지는 미지수지만 도서관은 이 책을 계속 보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책은 단지 오래된 책이 아닌 유물"이라며 "책은 우리 도서관의 일부 역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인트 폴 도서관장 모린 하트만은 "이 책은 도서관이 현재뿐 아니라 100년 전에도 의의가 있었고 중요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